

방탄소년단, 반일 논란에 방송 출연 취소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하루 전날 취소됐다. 최근 한 일본 매체가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를 문제 삼으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일본 공식 팬클럽 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9일 예정된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께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공지했다.

일본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도 같은 날 출연 보류 소식을 알리며 “이전에 멤버가 착용한 티셔츠 디자인이 과문을 불러와 일부에서 보도됐고 방송사는 소속 레코드사에 그 착용 의도를 묻는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이번 출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일본 매체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입은 티셔츠와 RM의 광복절 SNS 글을 문제 삼으며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민의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사진 원안)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의 영문이 담겼다.

RM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트위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래퍼 도끼, LA한인타운서 도난 사고

래퍼 도끼(28)가 LA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다.

도끼는 6일 SNS에 “어제 저녁 7시에서 7시30분 사이 LA 한인타운의 한 설렁탕집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범들이 차 유리를 깨고 제 백팩이랑 제 매니저 백팩을 훔쳐갔습니다.”라며 “도난당한 백팩에는 목걸이, 시계, 카메라, 한국 휴대전화 두 개, 제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 도난 당했습니다. 지인 분들과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도끼는 또 “경찰에는 신고했지만 LA에서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경찰과 경호 담당 모두 가방을 차에 놔둔 우리 잘못이라고 하고 거의 잡을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며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을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저녁을 먹는 상황에서 가방을 차에 두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끼는 차량이 파손된 흔적을 담은 영상도 올렸다. 영상 속에서 차의 왼쪽 두 유리창은 모두 깨졌다. 좌석들도 엉망이 됐다.

도끼는 지난 9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사했다. 도끼는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른 살이 되는 내년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올해 말부터는 어릴 때 꿈이었던 미국에서 지내볼 것”이라며 “한국에는 기본 짐과 작업실만 남긴다. 지금처럼 국내에서도 공연 등 활동은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123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61에 있습니다)

9	1		5		2		
		4	2			3	
	2	1	6				
		9	4		6	5	
6			1	5			
	8	7			9		
					6	5	4
2			6	8			
		1			8	2	

아리아나 그란데, '2018 올해의 여성' 팝스타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사진)가 6일 빌보드가 발표한 '2018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빌보드 올해의 여성’은 동시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성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으로, 곡이나 성공적인 경력으로 음악계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동안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할리우드 거물급 유명인들이 ‘올해의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로스 스카라노 빌보드 콘텐츠 부대표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진 스타다. 업계 음악 트렌트나 특정 방향을 따라가는 법이 없다. 그란데는 당찬 용기를 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올해의 여성상을 많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란데는 지금까지 빌보드200 차트 1위를 3번이나 달성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앨범 ‘스위트너(Sweetener)’는 여성 아티스트의 팝 장르 앨범 중 발표주 스트리밍 횟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에는 싱글 ‘고마워, 다음(Thank U, Next)’을 통해 세상을 떠난 전 연인 맥 밀러와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파혼한 전

약혼자 데이비슨에 대한 애정을 노래했다. 또 지난해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콘서트 직후 자살 폭탄이 터져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하자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선 공연을 열었고 희생자들을 위해 2,300만달러(약 260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6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3회 우먼 인 뮤직’ 행사에서 진행된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w.com
info@suh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